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7. 11.(목) 11:00 < 7.12.(금) 조간 > 배포 2024. 7. 11.(목)

배터리업계와 신통상규범 대응방안 점검

- 릴레이 업계 간담회 일환으로,
유럽연합(EU) 배터리법·공급망실사지침·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공급망 협정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7.11.(목), 배터리협회, 삼성SDI, LG에너지솔루션,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, 유럽연합(EU)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·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·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 지침은 7.5.(목) 관보게재되어,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'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며, 「EU 공급망 실사지침 Q&A북*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」을 배포하였다.

* 알기 쉬운 EU 통상정책 시리즈 'EU 공급망 실사 지침'('24.7월)

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*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,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 또한, 리튬,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하였다.

* 전략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(인허가 기간단축 5년→27개월) 및 투자 촉진

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"공급망 안정화,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, 우리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"고 언급하며, "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"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	책임자	과 장	윤선영 (044-203-4870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신 (044-203-4876)
			사무관	강석하 (044-203-487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신통상규범 대응 배터리업계 간담회**

□ **개　　요**

○ **(목적)** 유럽연합(EU)의 공급망실사지침·배터리법·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신통상규범 대응상황 점검 및 의견 청취

○ **(일시/장소)** ’24.7.11.(목) 15:00~16:30,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의실(7층)

○ **(참석자)** 산업부,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및 업계, 유관기관 등

- **(산업부)** 신통상전략지원관(주재), 신통상전략과
- **(업계)** LG에너지솔루션, 삼성SDI, SK온 등
- **(유관기관)**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광해광업공단

□ **주요내용**

① 공급망·기후 등 통상현안 공유 (산업부·유관기관)

② 신통상규범 대응현황 및 의견 청취 (협회·업계)

□ **세부일정(안)**

시　간		내　　용	비　고
15:00~15:05	5분	모두 발언(5분)	신통상전략지원관
15:05~15:40	35분	① 통상현안 공유	산업부·유관기관
15:40~16:25	45분	② 대응현황 및 의견 청취	협회·업계
16:25~16:30	5분	마무리 발언(5분)	신통상전략지원관